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80호 【루게 제25223호】 주제 105 (2016)년 3월 20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상륙 및 반상륙방어연습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상륙 및 반상륙방어연습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훈련장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육군대장 리명수동지, 인민무력부장인 육군대장 박영식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장인 육군중장 조남진동지, 조선인민군 보위국장인 육군대장 조경철동지,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육군상장 윤동현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인 해군



처럼 해안에 불의적인 방법으로 기습상륙하여 공격으로 이전하면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할수 있다고 만족해하시였다.

이어 반상륙방어연습이 진행되였다.

비행대의 상륙준비타격에 이어 해안으로 상륙하는 《적》상륙과들과 해안 방어지대중심에 공중강습한 《적》직승기륙전대들을 소멸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제7군단관하 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포병들이 포를 정말 잘 쏜다고, 가슴이 후련하다고 하시면서 저렇게 잘 준비된 우리의 미더운 포병들이 열적의 포신을 들고있기에 그 어

중장 김명식동지, 조선인민군 포병국장인 육군중장 윤영식동지, 조선인민군 해군사령관인 해군대장 리용주동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인 항공군대장 최영호동지, 조선인민군 제7군단장인 육군중장 리태섭동지, 조선인민군 제108기계화보병사단장인 육군중장 송영진동지가 맞이하시였다.

군단장들과 각급 군사학교 교원들이 연습을 참관하시였다.

연습은 실용적인 상륙 및 반상륙방어 연습을 통하여 해군과의 협동작전밑에 남반부작전지대에서 활동하게 될 최후전

선부대들과 기계화보병부대들의 신속한 남반부작전수역으로의 해상기동과 기습적인 상륙작전전투조직 및 지휘의 현실성을 검토하고 해안차단물극복능력을 높여주는것과 함께 현재 설치된 해안차단물들의 견고성을 확충하고 대책을 세우으로써 해상공격 및 해안방어작전계획을 더욱 완성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습에는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의 수상함선들과 지척병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2항공사단 아래 추격기들, 조선인민군 제7군단 포병구분대들, 조선인민군 제108기계화

보병사단의 일부 력량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으로부러 연습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연습개시명령을 내리시였다.

먼저 상륙연습이 진행되였다.

공병정찰조가 상륙구역정찰과 파괴를 위해 은밀히 침투하여 상륙구역에 설치한 각종 차단물을 폭파하는 전투행동을 진행하는 한편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관하 지척병구분대들과 제108기계화 보병사단관하 포병구분대 군인들이 승선한 고속함정들이 해안으로 신속히 접근

기동하며 달려드는 《적》무장직승기들에게 대한 직승기사냥전을 벌였다.

《적》들의 반상륙방어행동을 제압하며 해안에 기습상륙한 전투원들이 해안차단물들에 대한 제거, 해체전투행동을 벌리며 각종 전차, 지휘소들을 습격하고 상륙구역을 확보하는 한편 상륙함들에서 하선한 탱크, 장갑차들이 포병구분대들이 개설한 통로를 따라 《적》중심으로 신속히 공격성공을 확대하는 전투행동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상륙부대들의 과감한 전투행동을 보시고

연습은 분별없이 날뛰는 침략의 무리들이 신성한 내 조국강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뿜긴다면 이 세상 가장 정의롭고 위력한 백두산혁명강군의 총대로 미제침략자들과 악근해괴력역적패당들에게 무자비한 죽음을 안기고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고야말것이라는 것을 힘있게 과시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